

율법학자 서기관

찬양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기도해요 가족 중 한 명이 대표기도해요

말씀을 읽어요 마태복음 23:23-28

- 23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는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 24 맹인 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 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 25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 26 눈 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 27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 28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구약시대에 서기관들은 레위지파로 세습직이었고,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과 문서를 기록하는 일들뿐만 아니라 왕의 비서, 성전 참고지기까지 다양한 일을 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서기관의 직책을 거론하며 예수님이 질책하시는 모습이 많이 등장합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그들은 율법교사로 불렸습니다. 대부분 그들은 바리새인이며 산헤드린공회(유대 최고 의결기관) 핵심 인물들로 막강한 권한과 부를 누렸던 고위직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법조인쯤 될까요?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백성들을 잘못 가르쳐서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만 율법의 바른 정신을 잃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다보니 바른 교육이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외식하는 생활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겉보기에는 깨끗해 보이지만 탐욕과 방탕이 마음에 가득하다고 꾸짖으십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까지 서슴없이 자행했습니다. 서기관들의 모습을 통해 말씀을 대하고 적용하는 바른 태도를 배워봅시다.

1 서기관들이 율법을 두고 행한 것과 버린 것을 써 보세요(23절).

서기관들이 행한 것 : 식물의 십일조

서기관들이 버린 것 :

2 서기관들의 겉모습과 마음은 어떻게 다를까요?(25, 28절).

서기관들의 겉모습 : 깨끗함, 옳게 보임

서기관들의 마음 :

3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꾸지람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4 우리가 서기관처럼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26절)

5 우리는 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말씀을 대하는 바른 태도는 무엇입니까? 혹시 서기관들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 나누어봅시다.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없었다면 오늘도 제멋대로 살았을 텐데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저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